

숲처럼 사람을 품는 삶의 기록

"돌봄은 도움보다 동행이다"

글_한국산림기술인회 이사 · 前 KBS 시사고발 PD



나는 30년 동안 방송국 PD로 살아왔다.
사회 곳곳의 부패, 환경 파괴, 복지의 사각지대를 카메라로
비추며 '정의'와 '진실'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버텼다.

환경오염, 밀렵, 불법벌목, 사회적 약자 문제를 다루며
환경부 장관 표창, 녹색언론인상, 대한적십자 총재 표창,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반부패방지 공로로
노무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은퇴 후, 나는 전혀 다른 현장에서 있다.
지금 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한 지적장애
청년 '규종이'를 돌보고 있다. 카메라를 내려
놓고, 그의 손을 잡은 지 어느덧 3년. 그와 함
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숲이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과
손끝에서 세상의 깊이를 본다. 그의 하루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느낌은
오히려 내가 잊고 살았던 '인간의 시간'을 되
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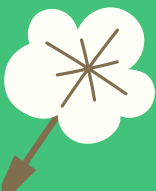


"나는 그를 돌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를 통해 나는 '돌봄'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다. 돌봄은 일방적인 도움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나누는 '동행'이었다. 그것은 나무가 나무를 가리지 않고 함께 자라는 숲의 이치와도 닮아 있다.

지금 나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의 한 사람으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함께 살아가는 숲을 꿈꾼다. 숲을 돌보는 일이나 사람을 돌보는 일이나, 본질은 같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의 기술이 산림을 회복시키듯, 한 사람의 마음을 품는 일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돌봄'은 숲의 순환처럼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로, 또 다른 이의 그늘로.

나는 여전히 기록한다. 이제 그 기록의 대상은 뉴스가 아니라 '사람'이다. 숲을 닮은 삶, 그리고 사람을 품는 기술, 그것이 내가 믿는 인간존엄의 숲이다.



그동안의 기록은 두 권의 책으로 엮어질 예정이다. 《돌봄의 현장에서 - 규종이와 나, 침묵의 1000일과 규종이 시리즈 10부작》은 내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자, 인간과 돌봄에 대한 응답이다.

이 두 작품은 2026년 출간 예정으로, 돌봄의 현장에서 마주한 인간의 존엄과 사랑을 문학적으로 담아낼 것이다.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숲처럼 사람을 품는 글을 쓰고 있다. 그 길 위에서, 삶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